

목포시, 맞춤형 생활안전 시책 펼친다

공중전화 부스 비상벨 설치...폐지 줍는 어르신에 안전장비 지급
강좌·체험교실 등 다채...재난관리 전담 최우수 지자체 선정도

목포시가 '사람중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생활안전 시책 추진에 나서 눈길을 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안전문화 시민강좌,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또 특정 관리대상 시설 643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축제장·전시장 등지에서 12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전력을 다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로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시군의 재난상황 관리 역량 실태 점검에서 목포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목포시, 여수시, 함평군은 공동으로 자체계획 수립, 각종 교육·홍보실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목포시의 경우 박홍을 시장 지시사항 관리 등 단체장 관심도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목포시는 내년도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시민생활과

연관된 생활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최우선적으로 '어르신 안전의식 교육 및 보호기능 강화'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안전교육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생활안전에 취약한 어르신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안전장비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취지다.

어르신 생활안전 교육은 경로당과 노인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2만75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순회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로당은 각 1회, 노인복지회관은 연 2회 실시된다.

특히 목포시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꾸리는 어르신을 위해 교통안전용품 지급하기로 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야간과 새벽시간대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내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약 35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이들에게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계절용 아광조끼와 신발 반사지 등을 지급해 어르신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



목포시가 목포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안전 훈련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침이다.

또 목포시는 안전예방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길거리에 노후화된 채 방치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 이곳에 비상벨·사이렌·보안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결합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다중 밀집 장소에 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45개 안전재난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된다. 목포시는 예산 3500만원을 투입해 안심부스는 15개소에, 안전정보 시스템은 20개소에 설치할 계획

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노약자, 복지생활시설 등 30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노후화 된 시설물을 보수해주고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이 골자다.

김찬익 목포시 안전도시건설 국장은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목포시 구현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인드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9경 사진공모전 금상에 고석원씨 '유달산 설경'

내달 21일까지 입상작 전시

목포시가 실시한 목포 9경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유달산 설경'(사진)을 출품한 고석원 씨가 영예의 금상을 차지했다.

또 '갯바위'를 출품한 김순희씨(전남)와 '실산에서 다도해'를 출품한 박경진씨(전남)가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이연이씨의 '눈 내리는 갯바위', 김은광 씨의 '유달산 운해', 김연자 씨의 '춤추는 바다분수'가 각각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김완수씨가 출품한 '일등바위'

등 5점이 가장, 최재영씨의 '갯바위와 사공' 등 50점이 입선하는 등 모두 61점이 입상했다.

새롭게 선정된 목포 9경을 널리 알리고, 9경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포착한 사진작품을 확보해 관광과 홍보, 행정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09점이 출품됐다.

한편 목포시는 다음달 1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상식과 함께 21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씨월드고속훼리, 해수부 해양안전 공모전 최우수상

목포 여객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가 최근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 공동으로 주최한 '2016 해양안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공모전에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탑재 3D 해상안전 솔루션'을 출품했다.

지난해에는 SK텔레콤과 합작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 탑재 3D 해상안전 솔루션은 여객선에 승선한 고객이 스마트폰 센서인식을 통해 안전솔루션이 실행돼 탑승과 승

선, 위치 등이 네비게이션 형태로 안전가이드를 제공한다.

또 탑승자의 위치를 자동 인식해 최적의 비상탈출로를 제시하고, 각 층의 구조를 실제도면에 맞춰 3D형태로 객실과 편의시설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재난문자시스템도 탑재돼 비상알림 서비스, 구명장비 작동법 등 이용객 안전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011년 연안여객선사 최초로 크루즈형 대형 카페리를 도입 운영 중으로 현재 제주지역 여객·화물 수송률 1위 선사다.

한편 씨월드는 수능 수험생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내년 2월까지 수험표를 지참할 경우, 목포~제주 항로 카페리 선박 일반실 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 내년 예산 6535억원 편성

사회복지 2598억으로 47%

목포시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653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는 올 6482억원 보다 43억원(0.82%)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24억원이 증가(2.34%)한 5454억원, 특별회계는 71억원이 감소(6.24%)한 10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141억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16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0.93%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은 954억원으로 17%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77억원으로 3.25% 늘었다.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598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7%를 차지한다.

관광·경제·환경 분야는 414억원으로, 민간투자 추진 중인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기존 관광인프라 사업과 연계하는 뉴 관광프로젝트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문화·체육 분야는 387억원이다.

또 도시건설 분야는 946억원으로 고도·목포대교·대반동 해안도로에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동명동 송도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상하수도 분야는 734억원으로 불 부족이 심각한 달리도율도 등 도서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해저수도관 매설공사 추진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북향 차관주택 단지 도로 양쪽을 불법 주차차 차량이 점령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북향 차관주택 단지 갓길 주차장 조성 사업 착수

고질적인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북향 차관주택 단지 내 주차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북향 차관주택 단지의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불법 주차차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갓길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당초 목포시는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정 부지의 부지매수가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돼 단지 내 중심도로의 인도를 축소해 갓길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보건소 뒤편에서 신안군 수협 목포지점까지 총 연장 439m의 구간을 3m에 달하는 인도 폭을 1.2m로 줄이고 추가 확보된 1.8m의 공간에 포켓식 주차장 51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3월말 완공 예정이다.

포켓식 주차장 조성에 나서는 이유는 인도에 전신주와 가로등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전신주 1개소를 이전하는 데만 1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돼 단지가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특히 갓길 마랑항 입구에 설치된 까막섬 등표는 지역 특산품인 도자기 형상을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해양청, 완도 사후도·강진 마랑항 등 등표 3기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완도 사후도·황간도와 강진 마랑항 진출입 항로의 안전을 위해 국비 9억원을 들여 등표 3기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완도 사후도, 황간도 인근 해역과 강진 마랑항 입구는 좁은데다 암초까지 있어 선박사고 위험이 크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완도 사후도와 황간도에 등표 2기를 신설하고, 노후한 강진 마랑항 입구의 등표(까막섬 등표)는 개량 설치했다.

특히 강진 마랑항 입구에 설치된 까막섬 등표는 지역 특산품인 도자기 형상을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망!
-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 계약금 5%!(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뷰**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39층 최상층에 입지
완전 2면 개방형 전망
39층 초고층 전용도형
최신형 모델하우스

분양문의 (062) **351-4610**

모형하우스 : 광주광역시 서구 논현동 44-2번 논현역 7번 출구구 일기대사리 빌딩 1부동

1. 1부동
2. 2부동
3. 3부동
4. 4부동
5. 5부동
6. 6부동
7. 7부동
8. 8부동
9. 9부동
10. 10부동
11. 11부동
12. 12부동
13. 13부동
14. 14부동
15. 15부동
16. 16부동
17. 17부동
18. 18부동
19. 19부동
20. 20부동
21. 21부동
22. 22부동
23. 23부동
24. 24부동
25. 25부동
26. 26부동
27. 27부동
28. 28부동
29. 29부동
30. 30부동
31. 31부동
32. 32부동
33. 33부동
34. 34부동
35. 35부동
36. 36부동
37. 37부동
38. 38부동
39. 39부동

·사제 (주)유탑디앤씨 ·사제 (주)유탑건설 ·사제 (주)유탑건설 ·사제 (주)유탑건설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2층: 내과, 검진센터
3층: 안과, 피부·비뇨기과
4층: 치과, 이비인후과
5층: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6층: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분양문의
010-4922-3317